

Moderating Effect an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Shin-Young Song*, Kyung-Rye Moon**

*Student,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Medical Scienc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derating effects and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t up four types of variables: 1) independent variable, 2) moderating variable, 3) mediation variable, and 4)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was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both a moderating variable and mediation variable, and psychological burnout was identified as a dependent variable. To empirically conduct this study,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rt therapists. Consequently, a total of 150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t differences in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and social support due to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included career, employment type and working hours. Second, the result showed a high-level of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and social support. Thir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Fourth,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 **Key words:** Art therapist, Job-stress, Burnout, Social support, Moderated effect, Mediation effec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과 매개변인,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150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미술치료사, 직무스트레스, 소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매개효과

-
- First Author: Shin-Young Song, Corresponding Author: Kyung-Rye Moon
 - *Shin-Young Song (ls900526@naver.com),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 **Kyung-Rye Moon (krmoon@chosun.ac.kr), Dept. of Medical Scienc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0. 01. 14, Revised: 2020. 02. 05, Accepted: 2020. 02. 05.

I. Introduction

현대인들은 과도한 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소진, 즉 번아웃(Burnout)을 호소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 소진(Psychological Burnout)은 직무에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번아웃(Burnout)이란 개념은 1970년대 미국 심리학자 Freudenberger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목표의식이나 일에 대한 포부가 과하게 높고, 긴 노동에 비해 짧은 휴식시간, 지나친 강도의 노동 등도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72회 총회에서 번아웃(Burnout)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제11차 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포함시켜 2022년부터 WHO 회원국인 194개 국가에서 도입된다[1].

한편, 미술치료사는 미술을 바탕으로 한 치료이론, 심리 및 발달 이론, 상담기술, 정신학적 영역까지 다양한 학문을 학습·응용하여 치료에 임하게 되며, 다양한 케이스의 내담자를 상담하게 되면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미술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으며, 심리적 소진에서의 간접영향요인과 보호요인들도 논의되고 있다. 김나영[2]은 그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김예은[3]은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돌봄 요인이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현희[4]는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서 자기격려 요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즉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술치료사들은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영역 즉 미술, 미술치료, 심리학, 정신학, 복지학, 상담기술에 이르기까지의 학문적 요구, 다양한 내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은 예상된 문제였으나 그에 반해 이들의 심리적 소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은 미술치료사의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의 세 변인은 상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넷째,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Preliminaries

1. Job Stress

직무요구-자원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에서는 직무요구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불안-우울-직무소진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5]. Sweeney, Nichols, and Kline은 치료사가 내담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 등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6].

이와 같이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경희[7]는 미술 치료사의 개인적·사회적 측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직업의 경제적 요소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하였다고 하였으며 김성은[8]은 미술치료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점,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 미술치료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과 보수조정, 미술치료사의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 인정 등의 법적 제도마련을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 Burnout

'소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Freudenberger가 1974년 심리학 저널에서 '스태프들의 번아웃(staff burnout)'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내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압박의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탈진현상에 대해 개념화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내담자들을 냉담하게 대하게 되는 무기력감을 겪는 상태로 설명한다[9]. 이후 Maslach과 Jackson이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면서 소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에는 소진의 증상과 특성을 확립하는 연구에 이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개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성 연구가 이루어졌다[10].

미술치료사의 소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나영과 정현희[11]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요인의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과 각각 독립적으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희정 등[12]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3.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안녕을 비롯한 정신장애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고 있다[13].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절한 지지를 받으며 살아간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박지원(1985)은 한 인간이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등과 상호작용하며 (1976)은 인간이 사랑과 돌봄, 그리고 존중을 받아 가치 있다고 여겨지거나 의사소통망의 구성원으로서 믿어지게 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또 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인 도움이라 하였다. 또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인간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형태의 자원이라고 하였다[14].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술치료사는 상담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태도 외에도 미술매체, 미술활동과정, 미술작품, 등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15]. 미술치료사는 심리치료 이론 및 심리 치료적 태도 및 기법과 미술활동을 통합하여 내담자에게 적절한 미술매체 및 미술활동을 계획하기, 내담자가 주저하는 표현을 적극적 표현으로 이끌기, 내담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욕구, 감정, 사고를 인식하며,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기, 시각적 표현 후에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여 현실적응으로 이끌기 등의 활동[16]을 하여야 한다. 즉 미술치료는 언어적인 상담을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17]. 따라서 미술치료사가 상담사보다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개인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3.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4.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Table 1. Subject of Study

variable	Items	Frequency	%
Employment History	1year under	14	9.3
	1~3years under	44	29.3
	3~5years under	39	26.0
	more than 5years	53	35.3
Employment Type	regular	60	40.0
	part time	74	49.3
	internship	8	5.3
	the others	8	5.3
Working Hour	5hours under	5	3.3
	20hours under	21	14.0
	40hours under	53	35.3
	60hours under	49	32.7
	more than 80hours	22	14.7

경력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14명(9.3%), 1~3년 미만은 44명(29.3%), 3~5년 미만은 39명(26.0%), 5년 이상 53명(35.3%)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40.0%(60명), 시간제는 49.3%(74명), 자원봉사는 0.0%(0명), 인턴은 5.3%(8명), 기타 5.3%(8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5시간 이하는 3.3%으로 5명, 20시간 이하는 14.0%으로 21명, 40시간 이하는 35.3%으로 53명, 60시간 이상은 32.7%으로 49명, 80시간 이상 14.7%으로 22명으로 나타났다.

Table 2. Squestionnaire Configuration & Reliability

variable (total questions)	composition of question (total questions)	source	reliability
Job Stress (28)	job factors(13) working environment (4) professional development (3) economic factor(4)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Da-Yeon, Kang (2011)	.803
Psychological Burnout (22)	emotional exhaustion(9) personal fulfilment(8) dehumanizing(5)	Sam, Lee (2012)	.703
Social Support (17)	emotional support(5) material support(3) evaluative support(3) informational support(6)	Mi-Kyung, Jung (2014)	.939

본 문항의 측정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검사인 Cronbach 알파값 증명에서는 보통 연구에서 0.6이상이면 문항의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직무스트레스 0.803, 심리적 소진 0.73, 사회적지지 0.93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III. Research Model

앞선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 2와 같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연구모형1의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조절변수는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는 심리적 소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2에서는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매개변인은 사회적지지, 종속변수는 심리적 소진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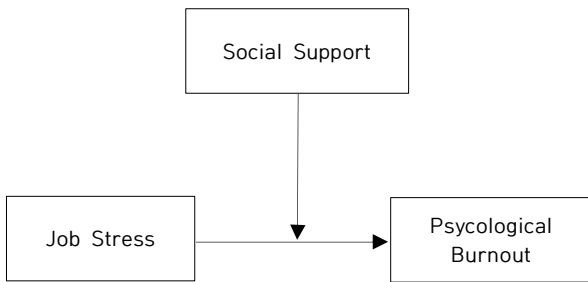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 moderating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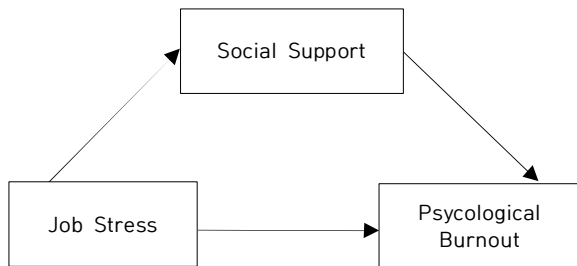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2 mediation effect

IV. Results

1. 1st Rhyphosis Testing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개인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고자 ANOVA를 사용하였고,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Verification of Employment History

variable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Job Stress	1year under	3.52	.418	6.862	.000**
	1~3years under	3.19	.444		
	3~5years under	2.86	.756		
	more than 5years	3.35	.567		
	total	3.19	.614		
Social Support	1year under	2.50	.604	2.463	.065
	1~3years under	2.16	.447		
	3~5years under	2.29	.691		
	more than 5years	2.48	.731		
	total	2.34	.647		
Psychological Burnout	1year under	3.25	.604	2.201	.090
	1~3years under	3.14	.848		
	3~5years under	2.88	.661		
	more than 5years	3.24	.634		
	total	3.12	.716		

*p<0.05, **p<0.01

위의 표3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Difference Verification of Employment Type

variable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Job Stress	regular	2.94	.702	6.785	.000**
	part time	3.39	.508		
	internship	3.23	.432		
	the others	3.23	.074		
	total	3.19	.614		
Social Support	regular	2.26	.738	.634	.594
	part time	2.40	.602		
	internship	2.26	.445		
	the others	2.47	.460		
	total	2.34	.647		

Psychological Burnout	regular	3.10	.817	1.095	.353
	part time	3.20	.614		
	internship	2.84	.999		
	the others	2.84	.352		
	total	3.12	.716		

*p<0.05, **p<0.01

위의 표에서4 나타난 것처럼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Difference Verification of Working Hours

variable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Job Stress	5hours under	3.37	.078	4.248	.003**
	20hours under	3.48	.485		
	40hours under	2.96	.570		
	60hours under	3.20	.651		
	more than 80hours	3.42	.627		
	total	3.19	.614		
Social Support	5hours under	2.93	.000	3.354	.012*
	20hours under	2.16	.447		
	40hours under	2.26	.600		
	60hours under	2.29	.717		
	more than 80hours	2.67	.678		
	total	2.34	.647		
Psychological Burnout	5hours under	3.05	.274	0.893	.470
	20hours under	3.25	.565		
	40hours under	2.99	.667		
	60hours under	3.22	.796		
	more than 80hours	3.08	.829		
	total	3.12	.716		

*p<0.05, **p<0.01

위의 표에서5 나타난 것처럼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지지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개인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1은 각 요인 별 부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도 있었으나, 세 요인 중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2. 2nd Rhyphosis Testing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2.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 간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Job Stress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urnout
Job Stress	1		
Social Support	-.195*	1	
Psychological Burnout	.186*	-.357**	1

*p<0.05, **p<0.01

위의 표6에서 보여주듯이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계수는 -0.3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설2.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채택되었다.

3. 3rd Rhyphosis Testing

본 연구의 가설3.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음 표 7에서 보여주듯이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리고 VIF(분산팽창인자)에서도 1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²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 한다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ependent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psychological Burnout	1	Job stress(A)	.100	2.051*
	2	Job Stress	.142	1.580
		Social Support(B)	-.408	-4.798**
	3	Job Stress	.117	2.186*
		Social Support (A) \times (B)	-.355	-3.939**
				.280
VIF	DW	R2	Δ R2	F
1.000	1.519	.017	.017	3.032*
1.009		.142	.124**	12.146**
1.009				
1.260				
1.147		.159	.017*	9.180**
1.423				

*p<0.05,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한 모형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를 첨가한 모형 2단계의 설명력은 14.2%로 증가하였다.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수인 심리적소진에 통계적으로 (p<0.05)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times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15.9%로 .017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기 때문에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설3.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4. 4th Rhypothesis Testing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지지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 회귀분석 매개 검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8.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Step	Path	Standardizes coefficients
Step.1	Job Stress ->Social Support	.195
Step.2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urnout	.100
Step.3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090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urnout	-.368

t	P	VIF	R ²	F
3.167	.004	1.000	.019	5.362** (.000)
2.051	.000	1.000	.017	3.032** (.000)
1.580	.116	1.009	.142	12.146** (.000)
-4.798	.000	1.009		
Sobel test Z=-2.017 (p=0.003)				
independent variable->medi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0.201, standard error= 0.086				
mediation variable->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0.395 Unstandardized Coefficients= 0.085				

*p<0.05, **p<0.01

위 표는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법으로 직무스트레스1이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지지가 매개체 역할을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리고 VIF(분산팽창인자)에서도 1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표준계수 즉, 베타의 값이 .195이고, 유의확률이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2단계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결과 값을 보면, 베타가 .100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단계를 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인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회귀분석 결과 이다. 먼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베타 값이 .090 유의확률이 0.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베타 값이 -.368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과 값은 3단계의 독립변수 베타가 2단계보다 작으므로 증명이 된다.

따라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가설4.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설1.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개인 환경적 요인(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둘째, 가설2.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3.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4.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사회적지지요인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등이 미술치료사를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 실증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알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요인 외에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미술치료사들에 대한 심리적 소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들을 소진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들과 간접 영향 요인들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CKNOWLED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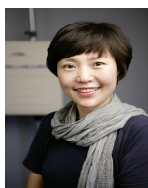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osun Univ. Research Grant 2017.

REFERENCES

- [1] DongA-Ilbo, <http://www.dona.com/news/View?gid=95736344&d ate=20190528>
- [2] Na-Young, Kim, "Art Therapist'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Burnout",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Master's degree, pp.65-66, 2011.
- [3] Yae-E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Art Therapists:The Mediation Effect of the Art Therapist's Self-car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pp.60-61, 2019.
- [4] Hyeon-Hee, Jeong, "Effects of Self Encouragement and Job Stress on Art Therapist's Psychological Burnout",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Vol 7, No.1, pp.1-17, June, 2017, DOI: 10.34167/cliart.7.1.201706.1.
- [5] W. B. Schaufeli and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 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5, No.3, March, pp.293-315, 2004, DOI: 10.1002/job.248.
- [6] G. M. Sweeny, K. A. Nicholas, and P. Kline, "Factors contributing to work-related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54, No.8, pp.284-288, January 1991, DOI.: doi.org/10.1177/03080269105400803
- [7] Kyoung-Hee, Kim, "A Study on Primary Factors of Job Stress of Art Therapist", Graduate Dongguk University Master's degree, pp.78-79, 2008.
- [8] Sung-Eun, Kim,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Art Therapist"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Master's degree, pp.57-59, 2012.
- [9] Yae-E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Art Therapist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Art Therapist's Self-car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p.60, 2019.
- [10] Hee-Jeong, Kim, Min-Jung Park, Hye-Jin Byun, Une-Ja Shin, and Yeo-Ju Chung,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73-87, June, 2018, DOI: dx.doi.org/10.5392/JKCA.2018.18.06.073,
- [11] Na-Young, Kim, and Hyeon-Hee, Jeong, "The Effect of Art Therapist'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Burnout",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9, No.4, pp.879-899, August, 2012, .DOI: 10.35594/kata.2012.19.4.007
- [12] Hee-Jeong, Kim, Min-Jung Park, Hye-Jin Byun, Une-Ja Shin, and Yeo-Ju Chung,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June, pp.73-87, 2018., DOI: dx.doi.org/10.5392/JK.
- [13] Cohen, S., and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109-125, 1983.
- [14] In-Ji, Yoo,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among Special Education Classroom Teachers", Graduated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degree, p.19, 2016.

- [15] Sung-Ho, Park,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Counselors Burnout", Graduated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pp.14-18, 2001.
- [16] Hyeon-Hee, Jung and Joo-Jin, Park, "Art Therapy for Self Ex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 with Withdrawal",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Vol.3, No.1, pp.21-37, December, 2013.
- [17] Sun-Nam, Choi,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Art Therapy Program in Kore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0, No.4, pp.659-674, August, 2013, .DOI: 10.35594/kata.2013.20.4.001

Authors



Shin-Young Song received the B.S. degrees in piano from Mokpo university and M.S degrees in fiber plastic art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1985, 2003, respectively. She complete Ph.D. course in

alternative medicin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19. She is interested in music therapy, art therapy, ocean healing therapy.



Kyung-Rye Moon received the B.S., M.S. degrees in Medicine from Chosun University in 1982, 1985 and Ph.D. from Chonnam University in 1997, Korea, respectively. Dr. Moo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Medical College at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1989.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Medical College at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pediatric gastroenerology, and nutrition,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